

# 전북대 자연대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다채

### 성균관대 이영희 명예교수 나노과학 강연 등 마련 '한국 과학과 문명' 30권 총서 완간 기념행사도

전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학장 이영아)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6일 오후 2시 뉴실크로드센터 7층에서 창립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매일 테마를 정해 자연과학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대 자연대는 이날 기념사에서 걸어 온 7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이를 기념하는 식수행사와 기념 공연, 기념 강

연 등을 마련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전북대 한국과학문화연구원(소장 신동원)이 12년 만에 '한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30권의 총서를 완간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린다. 이 총서는 고분벽화에 반영된 고대인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부터 현대의 반도체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성균관대 이영희 명예교수

일어난 과학기술과 문명에 대한 전체 역사를 규명한 것이다. 또한 이날 기념 강연에 전북대 자연대 출신의 세계적 석학이 강연자로 나서 이목을 끈다. 노벨과학상 수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로 손꼽히는 성균관대 이영희 명예교수(US 나노입자연구단장)가 그가 개척한 분야인 나노과학에 대한 강연을 펼치고, 국내 민물고기 연구자의 대부로 손꼽히는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가 '우리 물고기와 생물다양성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기념 슬로건

## 교육을 밝힌 100년 미래를 이끌 100년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내년 100주년을 기념해 기념 공식 슬로건과, 로고, 마스코



개교 100주년 로고



마스코트 '포롱이'

로고·마스코트도 선정

트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전주교대 100주년 기념 브랜딩 로고와 마스코트 '포롱이'는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확정됐다. 로고는 오방정색과 오방간색을 조합한 전통 색상을 사용해 100주년을 강조했다며, 마스코트는 작은 새의 날갯짓을 뜻하는 의성어 '포롱'으로 대학의 교조인 황희가 날아오른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슬로건인 '교육을 밝힌 100년, 미래를 이끌 100년'은 대학이 지나온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가치와 비전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슬로건, 로고, 마스코트 선정작을 100주년 기념품과 홍보물에 활용해 대학의 전통과 역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학 브랜드 평판을 높였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교대는 1923년 5월 1일 전라북도 공립사범학교로 개교해 우수한 초등교원을 양성해 왔다. /장은성기자

## '피부미용으로 어르신 위로'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는 5일 순창에서 KBS 전주방송총국 주관의 사회공헌사업인 '사랑나눔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순창 일품공원 내 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미용건강과 1학년 학생 30여명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피부 마사지 및 헤어, 네일케어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마사지를 받은 어르신들은 "어느 누가 우리같은 노인들을 찾아와 아픈 몸을 따뜻한 손길로 풀어주겠느냐"며 "바지 도시에서 예쁜 손녀들이 찾아와 마사지를 준 느낌이라 보약같은 따뜻한 치료를 받은 것 같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KBS 전주방송총국 주관 '사랑나눔 행사' 동참

김은영 학과장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어르신들을 찾아 피부미용 서비스와 사랑의 소품으로 조금이나마 위로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이러한 봉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ESG 운동의 정신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참여를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는 5일 순창에서 KBS 전주방송총국 주관의 사회공헌사업인 '사랑나눔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기후생태연구센터와 서울대학교 블루카본사업단이 지난 1일 군산대학교 본부 소회의실에서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 해양생물자원 우수 인재양성 '시너지 효과'

### 군산대 해양기후생태연구센터-서울대 블루카본사업단,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기후생태연구센터(센터장 해양생물자원학과 노정래 교수)와 서울대학교 블루카본사업단(단장 지구환경과학부 김중성 교수)이 지난 1일 군산대학교 본부 소회의실에서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협약은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관련 연구협력을 위한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반 원천 과학기술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군산대 해양기후생태연구센터는 2022년 설립돼 해양수산부 자원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 연구와 과학기술 기반 해양환경영향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기후·생태 관련 다수의 국제 연구개발 과제와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해양생태 및 해양환경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블루카본사업단은 2022년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로 지정되어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 (2022-2026년, 총 412억원)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국가 블루카본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 및 증진·산정기술의 개발과 탄소흡수원 연안 및 기후리스크 대응 해안조성 기술개발을 통한 실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에서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노정래 권봉오 교수팀은 신규탄소흡수원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여 총 5년간 약 6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고 있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해양 분야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연구협력을 위해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기후생태연구센터와 서울대학교 블루카본사업단이 연구 협력, 인력 및 기술 교류로 해양기후생태분야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대 노정래 센터장은 "기후변화 대응 해양 선두 그룹인 군산대 해양기후생태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블루카본 연구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향후 양 기관의 실질적 교류를 바탕으로 신규 해양탄소흡수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미래기후변화 대응 기술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대 김중성 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과학기술 전문성과 현장 노하우를 결합해 실증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블루카본 증진 발굴 연구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하면서, "군산대 해양기후생태연구센터를 활용한 신규탄소흡수원 발굴 연구가 향후 신규탄소흡수원의 국제적 인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으로 군산대학교 해양생물자원협력회는 서울대와의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돼 관련 분야 우수 인재 양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판근 기자

## '쓰레기도 줍고 친목 도모하고'

### 군산대, 미동동 일대 등서 '환경사랑 KSNU 쓰담달리기'

국립군산대학교는 최근 미동동 일대와 은파호수공원 근방에서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랑 환경사랑 KSNU 쓰담달리기' 행사를 했다. 쓰담달리기 행사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형태의 행사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정화하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한편 참가자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일반시민도 참여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동 행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었다. 군산대학교는 행사 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검사를 통해 매년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행사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쓰담달리기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행사일시, 장소, 구성 등을 정하고 있다"면서, "쓰레기도 줍고 친목도 도모하며, 특히 지역사회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지역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는 지난 4일 전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지역교육 발전방향 모색·상호 협력"

### 아교위, 전북 학운협과 협약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이하 아교위, 위원장 두재균)는 지난 4일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전북학운협, 회장 김명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는 데 상호 지원하고, 교육공동체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두재균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에 응해준 전북학운협에 감사드립니다"며 "양 기관은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교육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더

세심히 살피고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곤 회장은 "지역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전북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꾀하고 있는 아교위와 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지역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 두재균 위원장과 이강선 공동집행위원장, 서두석 사무총장이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김명곤 협의회장 및 신윤호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328명 선발

### 도교육청,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학년도 중등교사 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홈페이지(www.je.gok.kr)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립은 국어교과 등 26개 과목에서 총 328명(장애 31명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106명 감소했으며, 사립은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을 신청한 21개 법인의 19개 과목에서 88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17~21일 5일 간 전라북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je.gok.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1차 시험은 11월 26일 치러지며,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12일, 1월 18~19일 3일 간 실시된다. 한편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2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e.gok.kr, 교육소식-알림사항-고시/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e.gok.kr, 교육소식-알림사항-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이(www.je.gok.kr, 교육소식-알림사항-고시/공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오늘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협의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은 6일 오후 3시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2022년도 하반기 평화통일교육 관련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2022년 하반기 평화통일교육 운영 안내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 평화통일캠프 운영 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 '평화공존교육 활성화'는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이를 실현할 추진과제로 평화공존교육 교원 체험 연수 운영, 학생 평화공존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전문인력풀 구축, 메타버스 활용 평화공존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설정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